

단발령



조선시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머리를 길러서 땀기도 하고 성인 남성들은 머리 위에 상투를 틀기도 했습니다. 상투를 틀고 그 위에 전통 모자라고 할 수 있는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던 이유는 유교 정신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효를 강조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신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르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고종 황제는 단발령을 선포했습니다. 단발령은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법, 즉 남자들은 상투를 자르라는 법이었습니다. 위생과 청결에 좋다는 이유로 머리를 자르게 했지만 이는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단발령을 거부하였고 머리 자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황제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함께 모여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지방 사람들은 단발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면서 서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상투가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조차 싫어하였으며 서울이 집인 사람들도 지방으로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